



HDC아이파크몰 '더 드림 리빙페어' 실시

서울 용산 HDC아이파크몰이 10월 10일까지 4, 5층 리빙파크에서 '더 드림 리빙페어'를 진행한다. 70여 개 가구 및 리빙 브랜드와 협업해 친체된 가구 시장의 활성화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최대 할인&사는 행사', '아이파크몰 단독 특가 상품' 등 풍성한 구매 혜택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구성했다.

'포포인트 바이 웨라톤 서울강남' 윤연선 총지배인,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실용적 럭셔리 호텔로 인기...젊은층 사로잡아”

포시즌스 등 4개 호텔 오픈 주도 품격 있고 색다른 휴식 문화 제공해 고객에 맞춘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북한 관광정책 연구로 북한학 박사

“손님들이 편안하고 우아하게 호텔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호텔인들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호텔업계 동료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7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포포인트 바이 웨라톤 서울강남'의 윤연선 총지배인(57·사진)은 호텔 업계에서 32년의 잔뼈가 굵은 호텔전문 경영인이다.

윤 총지배인은 세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첫 호텔 업무를 시작했다. 15년을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동안 파크 하얏트 서울·부산, 포시즌스 서울, 포포인트 서울강남 등 내로라하는 4개 유명 호텔의 오픈을 주도했다.

그가 오픈한 호텔들은 당시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품격 있고 색다른 휴식 문화를 제공해 호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포포인트 서울강남의 그룹사인 서우제이앤디(회장 서병교)의 호텔총괄본부장이자 메리어트 호텔&리조트의 특화 브랜드인 포포인트 총지배인을 겸하는 2역을 하고 있다. 포포인트는 4성급 호텔이지만 실용적



27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포포인트 바이 웨라톤 서울강남의 윤연선 총지배인.

인 럭셔리 호텔을 지향하는 고급화 마켓 젊은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 포시즌으로 투숙률이 최근 90%에 이르며, 외국인 비즈니스맨은 물론 국내 동과 신사동 성형외과 등과 함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호텔 서비스와 K-메디컬을 연계한 특성화 전략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호텔업계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고 포포인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객 니즈에 맞춘 새로운 상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으로 활로를 뚫기 위해 노력한 결과 포포인트는 휴폐업이나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윤 총지배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호텔업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며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호텔다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세종대에서 호텔경영학 석사학위를 받는데 이어 올해 8월에는 동국대에서 ‘북한, 쿠바 관광정책에 관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과 한국외식경영학회 이사로 맡고 있다.

그는 “그동안 호텔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북한에 제대로 된 호텔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개인적인 꿈이 있다”며 “그때를 대비해 북한 연구를 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총지배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결방안으로 인한 유엔제재, 호텔 교통수송 등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핵문제 해결과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통해 북한에도 유명 브랜드 호텔이 들어서서 북한 주민들도 고급 호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일정·생활정보 등 TV로 한 눈에” ‘LG 씽큐’, 고객경험 확장 나선다

‘모닝브리핑’ 추가...현대차·기아 협업 통해 차별화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사진)의 고객 경험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LG전자는 씽큐 앱에 고객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닝브리핑’을 추가했다. 앱에서 서비스를 실행하면 LG 스마트TV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사전에 설정한 날씨, 교통, 일정, 메모, 차량 등의 정보가 한 화면에 모두 보인다. 2018년 이후 출시된 LG 스마트TV(웹OS 4.0 버전 이상 모델)에서 지원된다. 서비스 화면은 씽큐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면 예상 이동시간, 빠른경로, 거리 등 ‘티맵’ 서비스 기반 교통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구글 캘린더에 입력한 일정을 공유하고, 서드파티 앱에서 작성한 메모도 보여준다.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도 연동돼 등록 차량의 주차위치, 주행가능거리, 누적운행거리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LG전자와 현대차·기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집 안과 차량의 경계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모닝브리핑을 당분간 베타 서비스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씽큐 앱에 연동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애플 홈킷, 아카라, 하이홈 등의 IoT 기기와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SKT, ‘V컬러링’ 숏폼 영상 마켓플레이스 열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제공하는 동영상 컬러링 서비스 ‘V컬러링’에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싶은 사업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열었다.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회원 가입 한 번만으로 손쉽게 영상을 V컬러링에 올릴 수 있다. 15초에서 58초 사이의 영상을 V컬러링에 제안하면 제작 가이드 검수와 계약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V컬러링 앱에 영상을 올리게 된다. 이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소개된 영상을 선택 받게 되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영상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대 안산병원 의료봉사단, 인니서 진료봉사



고대 안산병원 로제타 홀 의료봉사단(사진)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17일부터 9일 동안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 울릴린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2017년부터 매년 지속한 안산병원의 해외 진료봉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재개했다. 안산병원과 이원의료재단을 비롯한 국내 의료진 30여 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19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했고 구강위생 교육 및 호흡기 질환 예방 교육, 성교육 등도 실시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최고의 하이브리드카”... 르노 ‘XM3’, 부산공장에서 20만대 생산 돌파

XM3 HEV 유럽 실구매자들에 인기 “10월 국내 판매...40만 돌파 기대”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는 물론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 판매되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XM3가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XM3는 지난 첫 10만대 생산 기간보다 절반 이상 단축된 10개월 만에 10만대를 추가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달성했다. 앞서 2020년 1월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XM3는 23개월만인 지난 해 11월 첫 10만대 생산



르노코리아자동차 XM3가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했다. 10월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르노코리아자동차

을 기록한 바 있다. 26일 기준으로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총 20만 3000여대의 XM3 중 국내 판매 모델은 약 6만4000대, 수출 모델은 약 13만 9000대, 수출 모델 중 약 60%에 달하는 8만2000여대는 지난 해 6월부터 유럽 시

장에서 판매 중인 XM3(수출용 르노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전문가들은 물론 실구매자들에게도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룬 XM3 E-TECH 하이브리드가 10월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면 40만대 생산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0월 중 국내 출시 예정인 XM3 E-TECH H 하이브리드는 10월 1일부터 사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르노 그룹 F1 머신에서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되었으며, 유럽 WLTP 기준 복합 연비는 20.4 km/ℓ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

‘서울국제트래블마트’,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건강·웰니스 등 관광콘텐츠 소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김기연)은 10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사진)와 ‘2022 서울의료관광국제

트래블마트’(SITMMT)를 개최한다. 온라인 비대면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이다. 올해는 서울관광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는 건강, 웰니스(건



강관리) 등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서울국제트래블마트와 2022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를 연계 개최한다. 국내외 관광업계에서 924개 사가 참여하며 33개국, 140명의 해외 구매자를 서울로 초청해 1대1 대면 면담을 진행한 다. 28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개막식은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 사이트에서 생중계한다. 김재범 기자